



결핵환자들에게 보내는 희망 엽서 캠페인이 열리고 있는 청계광장

## 청계광장에 올려퍼진 ‘결핵제로’ 3월 23일 결핵예방의 날 행사 현장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청계광장에서 진행하기로 한 야외행사에 때아닌 비예보로 밤새 잠을 설쳤다. 이른 아침 눈을 뜨자마자 베란다로 뛰어가 날씨를 확인했는데 다행히 새벽부터 내린 비는 많이 잦아들고 있었다. 행사진행에는 무리가 없겠다고 안도하며 집을 나섰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행사장에 도착하니 새벽에 좀 잦아들었던 빗방울이 다시금 굵어지기 시작했다.

세트장이며, 조형물이며 행사장 전체가 비에 흠뻑 젖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에서 오가는 행사 관계자들이 저마다 묻는 질문 한 마디, “오늘 행사 예정대로 진행하시나요?”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는 오후부터는 그래도 날씨가 좀 나아지겠지 하는 바람과는 달리 빗줄기는 더욱 굵어지고 날씨는 추워졌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을 알리는 미디어 행사가 시작되고 사진기자들이 조형물과 캐릭터인형, 모델들 사이에서 연신 플래시를 터트리고 있었지만 비에 젖은 행사장으로 시민들의 발길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행사관계자 및 협회 임직원, 정부 관계자들마저도 비를 피하기 위해 마련된 천막 아래로 대피하여 날씨와 행사에 대한 근심과 걱정 어린 한숨만 거둬하는 상황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멘탈붕괴’로 치닫고 있었다. 행사 담당자조차도 ‘오늘 행사 망했다’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었으니…….

하지만 그대로 낙담하고 포기할 KNTA인들이 아니지 않는가? 처한 악조건 속에서도 관계자들이 모두 힘을 합쳐 우리가 준비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자는 자연스러운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관계자들 모두 비옷과 어깨띠, 시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홍보물들을 챙겨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리로 직접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뜬말기는 하지만 오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주변 관공서 및 상점에 직접 들어가 오늘 행사에 대한 참여 홍보 및 취지에 대해 있는 힘껏 홍보를 시작하였다. 암울했던 행사장 분위기는 어느덧, 악천후 속 어려움을 잊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려는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변화하였다.

이후 행사장에서 진행된 시민대상 퀴즈이벤트



결핵예방 및 퇴치의 염원을 담은  
희망의 날개가 웅장한 음악과  
함께 행사장에 활짝 퍼지는 순간,  
비바람 속에서도 시민들과  
행사관계자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함께한 열정적인 행사장 분위기에  
다짐행사에 참석한 국내외  
귀빈들도 놀라워하는 모습이였다.



- 1 악천 후 속에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리 홍보에 나선 협회 직원들
- 2 우리협회 문영목 회장과 전병률 질병관리 본부장, 전 WHO 결핵담당관인 레오폴드 블랑 및 관계자들이 결핵 퇴치를 위한 '희망의 날개'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다.
- 3 이벤트가 열리고 있는 청계과장. 많은 비가 오고 있지만 관계자들과, 지나가던 시민들의 참여로 행사는 활기를 띄었다.



3

및 아카펠라 공연 등을 통해 많은 수는 아니지만 오가는 시민들도 조금씩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고 기존의 행사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이번 행사의 의미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며 즐기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번 행사의 클라이맥스는 뭐니 뭐니 해도 결핵퇴치의 염원을 담은 조형물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결핵퇴치 다짐행사가 아니었을까 한다. 행사 준비단계에서부터 조형물이 비에 젖어 잘 퍼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걱정을 많이 하였는데, 본 행사에서는 다행히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결핵예방 및 퇴치의 염원을 담은 '희망의 날개'가 웅장한 음악과 함께 행사장에 활짝 퍼지는 순간, 비바람 속에서도 시민들과 행사관계자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함께한 열정적인 행사장 분위기에 참석한 국내외 귀빈들도 놀라워하는 모습이였다.

이후 참여하신 귀빈들이 일일이 행사관계자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치하하며 잡아준 손의 따뜻한 온기처럼, 그날 하루의 고생이 말끔히 사라지고 있었다.

오늘날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이 아닐까? 행사 초기 악천후 속에서 이번 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결핵에 대한 인식과 관심 또한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 낙담하고 포기하기보다는 결핵 관계자들이 자신의 맡은바 직무에서 보다 적극적인 헌신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러한 모습과 의미들이 시민들과 사회 전체로 널리 전파되고, 결핵에서 자유로운 세상에 한 발짝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렇더라도 내년에는 비 좀 안 왔으면……. †